

[讨论稿]

「중국 유학생 한국문화 적응 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 K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형구(국민대)

안녕하십니까? 박봉순, 오한나 선생님 발표문의 토론을 맡은 국민대 권형구입니다.

흥미로운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 유학생 수는 4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K 대학의 경우 중국 유학생 수 비율이 80%에 가까우며, 저 또한 수업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본 연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큼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많은 유학생들이 새로운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이와 동시에 한국어와 전공에 대한 부담감까지 느끼며 생활하고 있고, 한국 학생들과의 문화적 거리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화 적응력은 언어적 능력에 영향을 끼치고 자연스럽게 학업성취도로 연결되는바, 유학생의 문화 적응력과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언급하신 대로 연구 대상 수와 질적 연구를 추가하여 좀 더 심화된 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 발표문을 읽다 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 이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 K 대학의 경우 중국 유학생 수가 1271명으로 전국에서 9번째로 중국 유학생이 많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과과정 운영을 운영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어 강의에 대한 평가를 설문 조사에 포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K 대학 내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문화 적응력과 학업성취도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K 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원어 강의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 적응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통합”형으로 가지 못하고 “분리”형으로 변하면서 한국 사회와 거리를 두는 현상도 학교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와 평소 중국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제 학생들의 적응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